

전남도교육청 100억대 노후 컴퓨터 1만 1560대 교체사업

삼성-LG 세번째 수주전 격돌

5월 공고 6월중 입찰...두번 연속 LG 승리

전남도교육청의 100억대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에 컴퓨터업체가 들쭉이 있다. 특히 삼성과 LG는 자존심을 걸고 세번째 격돌에 나설 전망이다.

28일 전남도교육청과 업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5월 '각급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 컴퓨터 구매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 컴퓨터는 일반학교와 특성화 고교에 1만560대, 저소득층 가정에 1000대 등 총 1만1560대다. 사업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난달 규격선정위원회를 열어 컴퓨터 사양과 성능 등 제품의 규격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 입찰공고를 내 6월경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격은 입찰공고와 함께 공개한다.

입찰은 제안서 평가와 가격 심사로 결정된다. 제안서 평가에서는 85점 이상 받아야 하고 가격은 최저가 낙찰이다.

사업비가 109억원에 달한 데다 업체간 자존심까지 걸린 탓에 벌써부터 뜨겁다. 업체에서는 제품 규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입찰 경쟁을 벌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번째 격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두차례 모두 LG가 승리했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입찰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 80억대 PC교체 사업에서는 삼성과 LG가 맞붙어 가격 경쟁에서 LG가 이겼다. 당시 삼성은 "LG 제품은 입찰공고 규격과 맞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했다.

110억원대였던 지난해에는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한국HP, 삼보컴퓨터 등 메이저 4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가격 경쟁에서 삼성이 가장 앞섰

지만 외부저장장치(USB) 사용 방식에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규격과 어긋나 낙찰에 실패했다. 삼성은 도교육청에 제의의를 요청하는 등 항의했지만 결국 LG전자에 사업권이 넘어갔다.

2년 연속 쓴 잔을 마신 삼성전자는 설욕을 버리고 있다. 전담팀을 꾸려 컴퓨터 규격 점검 등 입찰을 철저히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로 100억 원대 1만대의 컴퓨터 판매가 결정되는 만큼 관심이 높다"며 "특히 지난 두차례 각축을 벌여 연거푸 패배한 삼성의 설욕전이 관심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입 농식품 원산지 표시

농산물관리원 감시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도시 상시 기동단속반을 확대하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은 전국에 걸쳐 일제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긴급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다.

긴급단속반은 감시의 취약 시간이나 사각지역을 막으려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활동하며 단속 대상에 원산지·유통소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관세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관련기관과 통관·검역정보를 공유해 수입이 갑자기 늘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가격변동이 크거나 부정유통 가능성이 큰 품목은 실시간으로 감시해 통관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추적 조사를 벌인다.

소비자단체 회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우수관리업체는 점차 확대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는 스마트폰 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업소 위치가 온라인에 드러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철뉴스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광주시농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과 광주 남구청(청장 최영호)은 28일 광주 남구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농보증재단은 남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고금리 부담 등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 약 5억원의 특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광주신문 제공>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10% 확대

포장지 제작·홍보 지원...품목도 매년 추가

'수산물 주만등록제'가 확대 시행된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를 지금보다 10% 많은 1450개까지 늘리고 대상 품목도 매년 1개씩 추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업체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산물이력제 라벨

력제를 도입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품목명,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 양식장과 산지 위관장 주소가 이력제 기록된다. 유통인과 판매자에 대해서도 같은 정보가 담긴다.

수산물 이력제에는 넉치, 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굴, 전복, 뽕장어, 오징어 등 18개 품종이 등록돼 있다. 참여업체는 생산(179), 가공(99), 유통(19), 판매(1,024)를 포함해 총 1천 321곳이다.

농식품부는 "이력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연철뉴스

단열재 일체형 데크...건설공정 확 줄여

화순 동아에스텍(주)

건설 신기술 인증 받아

철근 트러스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단열재 일체형 데크'가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한상원 회장

화순에 있는 코스피 업체인 동아에스텍(주)은 28일 철근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에 단열재를 붙여 시공해 건설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관 거꾸집 공법(이하 단열재 일체형 데크)'이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한층의 골조공사가 끝나면 후속공정으로 단열재를 따로 시공한다. 그러나 이 제품은 공장에서 데크플레이트와 단열재가 함께 결합돼 생산하기 때문에 1개의 공정으로 끝난다.

그만큼 공기를 줄일 수 있다. 또 콘크리트와 단열재가 밀착돼 단열 성능이 뛰어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다.

건설현장 환경도 개선된다. 건



동아에스텍의 신기술 '단열재 일체형 데크 공법'이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이다.

설현장에서 단열뽕칠(단열성이 있는 혼합물을 표면에 뿌려 칠하는 공법)을 할 경우 뽕칠두께에 따라 유독물질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공장에서 단열재가 부착된 채 가져오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다.

동아에스텍은 신기술 개발로 건축용 데크 사업에서만 올해 21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2015년 350억원, 2016년 5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로안전시설물 국내 1위 업체인 동아에스텍은 이밖에 친환경 목재데크, 방음벽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회사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5% 성장한 950억원, 영업이익은 70억원이 목표다.

한상원 회장은 "건설현장은 인력난이 심화돼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 쾌적한 작업환경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확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출기업 76% "엔저 연말까지 지속"

500개사 조사...68% "환차손 등 피해" 55% "별다른 대책 없어"

수출기업 10곳중 8곳은 엔저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500여개사를 대상으로 '엔저 현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소 연말까지'라는 응답이 75.5%였다.

엔저가 장기화하면 예상되는 피해(복수응답)로 62.1%가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한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을 꼽았고 '일본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47.6%)', '대일 수출 감소(21.0%)'를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중순 이후 엔저가 심화하면서 상당수 수출 기업들

이 단기적으로 환차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엔저 현상에 따른 피해 여부를 묻는 말에 68.0%가 환차손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철강·금속, 조선·플라스틱·기자재, 음식료·생활용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엔저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 54.7%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원가 절감, 해외 마케팅 강화, 신시장 개척, 한해치 등 대응책을 나름대로 마련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엔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 69.9%가 '수출 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꼽았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031.74 (-8.02)
코스닥지수	519.56 (-2.18)
금리(국고채 3년)	3.59% (-0.04)
원·달러 환율	1,135.50원 (-1.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주간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 합시다!

"안전운전을 위한 팀이머니, 매너"

차량 전조등(Headlight)이란?

-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다른 차나 사람에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경고수단
- 최근 출시된 국산차나 외제차는 주간 주행등 미장착 차량의 경우 전조등은 하향 라이트를 말함(국내법규도 개정하면서 국산차도 주간주행등 설치 가능)
-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amps)은 주간점등을 위해 기존 등화장치외에 별도의 전용 등화를 설치 하는 것으로, 시동과 동시에 점등이 되며 EU에서는 주간주행등 규정을 1992년부터 제정해 2011년부터 유럽전역으로 의무장착(트럭과 버스는 2012.8부터)

전조등 켜기 꺼리는 이유?

- 연료및 배터리 소모, 전구수명 단축 등 인식 때문
- 초보운전(운전미숙)자로 오해를 받고, 또 상대방 운전자에게 미안해서 등

전조등 켜기 기대효과?

- 운전자: 운전시 주의력·집중력 향상, 졸음운전·중요시 침범 등 사고방지 효과 발생
- 노인, 어린이 등 보행자: 자동차 위치가 쉽게 인식되어 사고예방 효과
- ※[2009년 교통안전공단] 전남지역 법인택시 1680대 주간전조등 시해결과 28% 감소
- ※[2008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주간전조등 점등 운행시 2,621억 비용편익 발생

전조등 켜기 연료소모는?

- 시속 60km로 50km의 거리를 주행할 때 0.1ℓ의 기름 추가소모(약 200원)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